

2023학년도 서강대학교
모의논술 자료집 2차
- 인문계열(인문사회) -

서강대학교 입학처

목 차

<input type="checkbox"/> 문제 및 제시문	1
<input type="checkbox"/>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4

■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50분입니다.
2. 답안분량은 800~1,000자입니다.

문제

[가]와 [나]에 나타난 현상을 [다], [라]를 통해 분석하고, 그 해결의 필요성과 방향을 [마], [바], [사]를 통해 논하시오.

제시문

[가] 지난 4월 12일 ‘정치양극화 수준의 국제비교와 시사점’을 주제로 박준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토사센터 소장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통령이 직무를 잘 했다는 긍정평가에서 여당 지지층과 야당 지지층간 격차가 컸다. 김영삼 정부 39%포인트, 김대중 정부 48%포인트였고 노무현 정부 시기엔 62%포인트로 상승했다. 그 후 이명박 정부 64%포인트, 박근혜 정부 75%포인트로 계속 커지다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무려 85%포인트에 이르렀다. 정부에 따라 여당 지지층과 야당 지지층간 긍정평가 비율이 가장 크게 차이가 났던 시기를 기준으로 본 수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치양극화가 가장 극심한 나라로 꼽히는 미국보다 심각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략]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 많은 정보와 소통, 참여가 가능해졌지만 건전한 토론과 속의 대신 편가르기와 분노에 기반한 극단주의 또한 또아리를 틀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한겨레, 2022.05.16

[나] 온라인 커뮤니티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배척하는 ‘외딴섬’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전문가들은 생각과 취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커뮤니티에서는 극단적인 의견이 형성되기 쉽다고 지적한다. 성신여대 심리학과(임상심리전문) A 교수는 “신념이 유사한 사람들끼리 어울릴수록 해당 가치관이 확고해지는 현상을 ‘집단 극화’라고 한다”며 “이는 세상을 ‘우리’와 ‘그들’로 범주화하고 생각이 다른 집단을 공격하는 양상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오프라인에서 집단 극화는 ‘밈거’(밈고 거른다)의 태도로 표출된다. ‘밈거’는 내 기준에 어긋나는 사람과는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뜻의 신조어다. 박모(28)씨는 처음 만난 사람이 특정 드라마를 본다고 하면 거리를 둔다. 박씨가 활동하는 커뮤니티의 회원들은 남녀 주인공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여혐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드라마를 싫어한다. 박씨는 “이 드라마를 언급했을 때 상대방이 호의적으로 나오면 그 사람을 ‘밈거’한다”며 “더 알아보지 않아도 나랑 맞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략] 전북대 사회학과 B 교수는 “과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 같은 공간이 있어서 원치 않아도 다른 의견을 지닌 이들과 논쟁할 수밖에 없었다”며 “온라인 공간에서는 이런 교류 자체가 막혀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일보, 2018.12.10

[다] 미국 듀크 대학교의 진화인류학자인 브라이언 헤어와 버네사 우즈는 인류가 지금처럼 지구상에 번성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타인과 협력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친화력’을

꼽는다. [중략] 인간의 친화력은 특별하다. 다른 동물들의 협력은 대개 한 서식지에서 같은 무리를 이루며 사는 친족에게 한정된다. 같은 종이라도 친족이 아니면 잘 돕지 않는다. 반면, 인간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과 협력적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무언가 공통의 정체성을 발견하면 된다. 인간은 응원하는 스포츠팀, 음식 취향, 좋아하는 연예인이 같은 사람끼리도 친밀하게 지낼 수 있다. 역사와 신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국가와 민족이라는 거대 집단에 소속감을 느끼며 협력하기도 한다.

-한겨레, 2022.01.16

[라] 사람은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모두 갖추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본능에 따라 행동하던 갓난아이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며 성장한다. 이처럼 사회 속에서 성장하면서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방식과 사고방식을 학습하는 과정을 사회화라고 한다.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 구성원은 사회화를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규칙과 규범을 알고 사회적 존재로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학습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은 자아 정체성*과 인성을 형성해 간다. 한편, 사회적 차원에서는 사회화를 통해 새로운 사회 구성원이 기존 사회의 가치, 규범 등을 학습함으로써 한 사회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자아 정체성: 자신의 성격, 취향, 가치관, 능력 등에 대해 명료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그런 이해가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고등학교 『사회 문화』

[마] 심의 민주주의는 속의 민주주의라고도 하며, 속의가 의사 결정의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로서 정치적 의사 결정에서 심사숙고하여 토론하는 대화의 과정을 중시한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선거나 투표와 같은 형식적 절차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서로의 정치적 입장이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깊이 있는 대화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공적 토론의 과정이 필요하다. 즉, 의사 결정의 결과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결정에 이르게 된 절차가 중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청회와 같은 공론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바] 담론 윤리의 대표자인 하버마스는 개인의 주관적인 도덕 판단만으로는 규범이 성립될 수 없으므로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화의 당사자들이 합의한 결과를 수용하고 그것을 의무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대화가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그래서 그는 합리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을 중요시한다. 하버마스는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돈이나 권력에 의한 왜곡과 억압이 없어야 하고, 대화 당사자들이 이상적인 담론의 조건인 개방성, 평등성, 호혜성을 지켜야 한다고 본다. 모든 사람에게 담론에 참여할 기회가 개방되어야 하고, 담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평등하게 발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담론 과정의 참여자들은 합의된 규범을 실천할 것을 상호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사] 컴퓨터 기반 온라인 매체의 등장은 새로운 글쓰기의 시대를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손수 제작물(UCC) 등 다양한 시각 매체의 등장으로 진부한 글쓰기는 쇠퇴할 것이라는 예

측도 있었으나 21세기 초기 글쓰기는 하나의 유행이 되었다. 하루에 수십 통씩 보내는 문자 메시지나 누리 소통망(SNS) 등에 글 쓰기, 신문 기사에 댓글을 다는 일은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글쓰기 행위들이다. 온라인 매체가 우리에게 글을 쓰도록 유혹하는 것은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과 달리 양방향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이다. 글쓴이 입장에서 독자의 즉각적인 반응은 글쓰기를 부채질한다. 글쓴이는 블로그 글에 달린 댓글이나 누리 소통망(SNS)의 ‘좋아요’ 반응에 주목하며 더 많은 팔로어*를 끌어들이기 위해 매력적인 글쓰기를 한다.

*팔로어: 누리 소통망에서 특정한 사람이나 업체 따위의 계정을 즐겨 찾고 따르는 사람을 이르는 말.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1. 출제의도

- 이 문항은 사례를 통해 제시된 사회현상의 본질을 이해하고 다차원적인 요소에서 문제에 대한 원인을 도출하여 교과과정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통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 특히 정치양극화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집단 갈등 사례에서 공통적 특성인 집단 극화와 극단주의의 공통된 성격을 이해하고,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서 제시된 인간사회의 특성을 활용하여 해당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도록 하였다.
- 집단적 의사결정과 합의 과정의 필수 요소를 교과서에서 제시된 심의 민주주의와 담론 윤리에서 도출하고, 양방향성의 의사소통을 해결책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문항해설

- 제시문 [가]는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대통령 직무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정치 양극화를 소개하는 신문기사이고, 제시문 [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집단 극화와 그로 인한 외집단 배척을 제시하는 신문기사이다.
- 제시문 [다][라]는 해당 현상에 대한 원인을 다차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인간의 고유한 특성으로 친화력을 언급하며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협력적 의사소통이 가능함을 주장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소개하는 신문기사이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사회문화』(구정화 외, 천재교육, 58면)에서 가져온 것으로, 사회화 과정 속에서 인간이 행동 방식과 사고방식을 학습하고, 결국 사회적 규범을 체득한다고 주장한다.
-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황인표 외, 교학사, 201-202면)에서 발췌한 것이고,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변순용 외, 천재교육, 190-191면)에 소개된 내용으로 사회문제의 해결책으로 심의 민주주의와 담론 윤리를 각각 소개하고 있다. 두 제시문 모두 합리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의사결정 과정과 집단 합의 과정의 필수적 요소로 제시한다. 제시문 [사]는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민현식 외, 천재교육, 35면)에서 가져온 것으로, 온라인 글쓰기의 상호작용적 특성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양방향적으로 가능함을 설명하고 있어, 제시된 문제 해결의 구체적 해결 방향을 제시한다.

3. 채점기준 및 유의사항

[채점기준]

- 제시문 [가]와 [나]에서 소개된 현상의 공통 속성을 개념화하여 제시하였는가?
- 사회 현상의 원인을 제시문 [다], [라]를 이용하여 파악하였는가?

- [다]: 공통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람과의 친화력
- [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규범과 가치의 학습
- 제시문 [마]와 [바]에서 언급된 개념의 공통점을 파악하여 해결필요성을 언급하고 [사]의 내용을 이해하여 해결방안으로 제시하였는가?
- [마]: 심의 민주주의의 공적 토론 과정에서의 개방성
- [바]: 담론 윤리에서의 강조하는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개방성, 평등성, 호혜성
- [사]: 독자의 즉자적 반응을 고려한 온라인 상 글쓰기

[유의사항]

- [가]와 [나]에 소개된 사회현상의 원인을 개인적, 기술적, 사회적 차원에서 소개하고 있는가, 해당 원인 간의 유사점 보다는 상호보완적 성격을 언급하며 인과적 관계의 총체성을 언급하는가에 따라 평가한다.
- [마], [바]의 유사점을 파악하여 문제 해결의 필요성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의 내용을 적절히 활용하였는지 평가한다.

4. 예시답안

제시문 [가]와 [나]는 최근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정치 양극화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집단 극화 현상을 소개하고 있다. 이 두 현상의 공통점은 자신과 비슷한 의견을 갖는 집단이나 같은 정체성을 갖는 사람들끼리 같은 정보와 감정을 공유하여 집단 내 사람들끼리의 공통된 의견은 더욱 공고해 지지만 다른 의견을 갖는 사람들은 배타적으로 대한다는 것에 있다.

제시문 [나], [라]를 통해 해당 현상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제시문 [다]는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기본 능력으로서의 친화력을 소개하고 있다. 인간은 사소한 특성을 공유함으로써 쉽게 친밀감을 형성하고 해당 집단에 대해 소속감을 갖는다. 제시문 [라]에서는 사람은 사회적 관계 맺음과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이 속한 집단의 행동 방식과 사고방식을 학습한다는 사회화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사회화가 가치와 규범의 전수를 통한 집단의 지속성을 가능하게 하는 과정임을 언급하여 정치 양극화와 온라인 커뮤니티 집단 극화가 장기간 유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숙의민주주의와 사회적 규범의 달성 방식을 소개한 제시문 [마]와 [바]를 통해 우리는 집단 극화 현상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 것을 알 수 있다. [마]는 심의 민주주의의 기본 요건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시민들이 토론과 대화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바]는 담론 윤리를 소개하며 집단적 합의과정에서의 개방성과 평등성, 호혜성을 기반으로 한 소통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반대로 집단 극화는 상호간 오해와 갈등을 유발시켜 숙의민주주의와 집단규범 형성을 방해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가 제안하는 양방향 소통을 활용할 수 있다. 온라인 기반의 양방향성 글쓰기는 독자의 반응을 쉽게 알 수 있어 글쓴이로 하여금 읽는 사람의 의견을 반영한 설득력 있는 글을 작성하게 한다. 비단 온라인 글쓰기 뿐 아니라 다양한 의사소통에서 타인의 의견이나 감정을 고려하면 집단 극화를 완화하고 원활한 공동의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